

한국은 대출금, 일본은 지원금



김 승 호 의
시 선

지난달 25일 오후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호텔.
중소기업중앙회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본의 전국중소기업단체 중앙회와 함께 ‘한·일 중소기업 경제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선 일본 중소기업청 야마자키 타쿠야 경영지원부장이 ‘일본 중소기업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자국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5억엔의 정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화제가 됐다. 환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5억엔이면 우리 돈으로 50억원 정도되는 큰 돈이다. 일본은 이 돈을 기업에게 대출로 지원하는게 아니라 그냥 주고 있었다.
포럼에 참석했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한국의 중소기업인들은 매우의 이해했다.
우리나라 정책 자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자를 갖고 원금까지 돌려줘야하기 때문

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준 지원금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지원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대출금이다.
김기문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신해 다시 되물었다. 야마자키 부장은 “5억엔을 무상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최대 5억엔까지가 한계다. 10억엔을 기업이 투자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5억엔 까지다. 단 1회까지만 지원해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본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많이하고 있어 이를 국내로 유도하기위해 내놓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 자리에 함께 있던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도 일본의 ‘진정한 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의 정책자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 일색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사업화 지원금, 수출 기업들을 위한 수출바우처, 혁신바우처가 전부다. 운송료, 무역보험료, 통번역 등에 쓸 수 있는 수출바우처의 경우 가장 많은 지원금이 1억원(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강소기업) 정도다. 컨설팅, 마케팅

팅 등에 쓸 수 있는 혁신바우처도 5000만원(매출 140억원 이하 소기업)이 한도다. 기업에게 5억엔(약 50억원)을 무상으로 싸주는 일본과는 수준이 다르다.
물론 기업에게 돈을 그냥 주는 것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상당하다. 국민 혈세니 당연하다. 그 중 ‘도덕적 해이’가 대표적이다. 일본이 지원 근거로 삼고 있는 ‘투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정책 자금과 관련해 해묵은 논쟁이 있다. 한정된 예산을 많은 기업들에게 골고루 주느냐, 될(성장할)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느냐가 그중 하나다.
우리도 일본처럼 통크게 싸주는 순수 지원금 형태의 정책자금 도입을 심사숙고할 때가 됐다. 대출금보다 무상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국내에서 대규모로 투자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더 높다면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무상으로 줬지만 이는 나중에 세금으로도 돌아온다.
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1966년 제정)은 어느덧 60년을 향해간다. 일본은 우리보다 3년 빠른 1963년에 제정됐다. 하지만 일본의 100년 가게, 100년 기업 숫자는 우리와 천지 차이다. 이곳에선 분명 비법이 있다.

/bada@metroseoul.co.kr

금융계급제 타파와 저소득층 포용



기지 수첩
안 재 선
(금융부)

금융계급제를 타파하면 정말 저소득층을 포용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저신용 서민 대출 최저금리가 15%가 넘어가는 것을 두고 “잔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신용자엔 낮은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서민만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금리는 신용의 반대급부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로 위험이 보상되고, 신용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은 시장의 기본 구조다. 단순 시장 구조에 ‘잔인하다’는 감정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그 잔인함을 문제 삼아 신용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의 ‘금리 역전’ 현상을 유지한다고가 정해 보자. 가난한 사람이 정말 죽을 맛에서 벗어나 포용 금융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근본 취지가 실현되고 보장될 수 있을까.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보호 대상이다. ‘가난한 사람=저신용자’가 아니다. 정부는 누구를 보호하려는지 기준부터 명확히 세워야 한다. 신용점수는 단순 소득 규모가 아닌 대출 규모, 연체 이력 등을 고려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가난해도 대출 규모를 줄이고 연체 이력이 없으면 고신용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부자여도 대출 규모가 크고 연체 이력이 잦으면 저신용자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보호해야 할 대상은 가난한 사람이지만,

대출이 많고 연체 이력이 잦은 사람이 아니다.
신용점수별 금리 역전 현상이 가져올 파급 효과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금리 왜곡으로 고신용자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에 따르면, 고신용자의 제2금융권 대출 약정 금액은 지난달 초 기준 10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이야말로 서민 금융의 영역이다. 고신용자가 서민 금융의 영역으로 밀려온다면, 2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은 음지 영역으로 연달아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
상생금융, 포용금융, 서민금융 등 그 많은 단어가 향하는 보호 대상은 저소득층이다. 적합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wotis4187@

오늘의 운세12월 5일 (음 10월 16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친구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니 경청. 48년생 배우자와 다른 사람과 만남을 주의. 60년생 이력서 낸 곳에서 소식이 온다. 72년생 과음을 자제하고 바로 귀가를 하자. 84년생 세상에 모든 일은 혼자서 할 수가 없다.

 소

37년생 처음에는 즐거운 만남이 이상하게 변질될 수가. 49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61년생 성공이 지척이니 힘내라. 73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을 보는 법이 아니라 서운해 마라. 85년생 조언도 사람을 봐가며 들어야 한다.

 호랑이

38년생 흉탄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50년생 모두 자신 탓이니 원망하지 마라. 62년생 건강에 좋은 차를 선물 받는다. 74년생 새로운 인연은 흠잡지 않을 수 있으니 자제. 86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일이 잘 마무리.

 토끼

39년생 아직보다는 양보하면 기회가 찾아오니 기다려보라. 51년생 모처럼 한가로운 하루. 63년생 꽃동산에서 여유 있게 노니는 격. 75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87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다.

 용

40년생 제3자로 가족의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 52년생 의욕이 지나치면 실수가 따르니 절제를. 64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 76년생 의지하다보면 발전이 더디니 자립심으로. 88년생 우울한 마음을 독서로 달래 본다.

 뱀

41년생 유래 통래 상쾌한 하루. 53년생 취미생활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65년생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협동과 소통으로. 77년생 분주해 하지 말고 일의 순서를 정해놓고 움직이도록. 89년생 상승의 운이니 모임에서도 진취적.

 말

42년생 혼자서 가고 마음대로 멈춘다. 54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명심. 66년생 경험 부족으로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다. 78년생 아침부터 부부간의 가정불화로 관재구설수가 따른다. 90년생 몸은 고달 피도 마음이 즐겁다.

 양

43년생 운을 바꾸기 위해 주변의 정리정돈을 한다. 55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67년생 주변에 부담은 주지 마라. 79년생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다 보면 복잡. 91년생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아프지 않다.

 원숭이

44년생 유리한 정보를 얻어서 이득을 본다. 56년생 애정 문제는 당분간 삼각관계를 초래한다. 68년생 돼지꿈을 꾸었으니 뜻을 이룬다. 80년생 반려아기를 키우려면 돈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서. 92년생 정성껏 기도로 관재구설을 면해보라.

 닭

45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야지 아직은 실망할 때가 아니다. 57년생 목표를 세우고 온 힘을 기울이자. 69년생 경사가 겹치니 금상첨화. 81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무슨 일이든 참여. 93년생 그동안의 베풀 덕으로 결실을 얻는다.

 돼지

46년생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라. 58년생 공동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70년생 불평 마라 세상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 82년생 작은 오해가 시간이 가면 골이 깊어지니. 94년생 있는 그대로 현실에 만족하라.

 돼지

47년생 태산이 되지 못해도 움직이자. 59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니 매사 조심. 71년생 새로운 계획은 생각을 신중히. 83년생 투자의 속삭임이 있으니 신중하게. 95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하는 속담이.

김상회의四季

유모(乳母)의 힘



유모(乳母)는 특별한 존재다. 유모(乳母)는 산모를 대신하여 유아에게 젖을 먹여 길러 주는 여성으로서 젖어머니라고도 한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분유가 발달하여 산모의 젖이 부족하더라도 분유를 타서 먹이니 옛날처럼 산모가 수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유모를 구하여 젖을 먹이는 일은 거의 생소한 일이 되었다. 전통시대 때에는 양반이나 왕가의 자제들은 산모의 수유 능력 유무를 떠나 유모를 두는 게 보통이었다. 지체가 높거나 경제력이 높을수록 안주인이 육아에만 전념할 수 없어 아이를 살피고 보호하고 역할을 해야 했기에 유모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들의 직장생활 등 사회참여가 높아지니 분유 체제로 넘어가면서 전통적 유모들은 점점 사라진다.
유모는 단지 젖만 먹이는 게 아니어서 아동을 지나 성년이 되고도 유모와 정서적 유대가 깊은 경우를 흔히 본다. 현대인들 중에서 유모와의 연대가 깊기로 소문 난 이는 바로 영국의 찰스왕이다. 왕세자로만 50년을 넘게 있었던 찰스 왕은 유모와의 각별함으로 유모가 퇴직할 때 엄청난 퇴직금과 선물을 주었다 하며, 심지어 세기의 불륜으로 영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미움을 산 카밀라가 유모와 외모가 비슷하여 심정적 안정과 유대감을 느껴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져 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선시대 때도 왕손이나 세자의 유모들은 혹여 자신이 유모를 했던 왕손이나 세자가 보위에 오르게 되면 권문세가 못지않은 대접을 받았다. 먼천은 물론 종 몇 품의 품계까지 받고, 유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종친 중 채택되기도 했지만, 종인들이나 평민들도 아닌 천민 출신이 많았는데, 이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젖이 풍부해야 했으므로 음식도 영양 좋은 성찬의 음식들이 제공되었다고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8	4	3	1
8							
7			4	3			
3		7				6	
		6				2	9
			9	6			8
							3
9	7	3	1				2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중·하·고·대·유·초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9	9	7	8	1	8	2	6
8	6	1	2	2	9	8	9	7
8	7	2	9	8	6	9	1	2
6	8	2	9	2	8	9	7	1
2	1	8	6	7	9	2	8	9
7	9	9	2	1	8	2	6	8
9	2	8	8	6	7	1	9	2
9	2	6	1	9	2	7	8	8
1	8	7	8	9	2	6	2	9

7	2	8	2	6	1	9	8	9
6	2	9	8	9	2	7	8	1
8	9	1	9	8	7	2	2	6
8	9	6	8	9	9	1	7	2
2	9	7	1	2	2	8	6	9
2	1	9	7	8	6	2	9	8
9	7	8	6	2	8	9	1	2
9	6	2	2	1	8	8	9	7
1	8	2	9	7	9	6	2	8